

4·11총선 여론조사-전남

이곳이 격전지

최 인기 조직·배기운 바람 '팽팽' 노관규·김선동 오차범위 내 접전

나주·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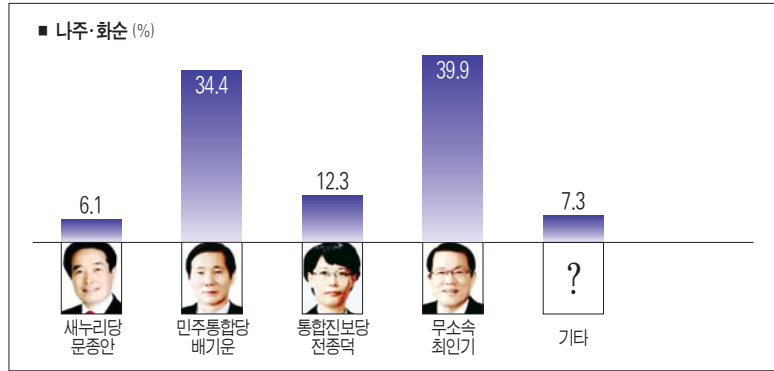
나주·화순 지역구가 전남의 최대 접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 인기 국회의원이 민주통합당 '컷-오프'에서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여파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공천을 배기운 전 국회의원의(16대)이 받으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의 최 인기 후보가 39.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배기운 민주통합당 후보가 34.4%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로 따라 붙었다.

이어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가 12.3%, 새누리당 문종안 후보가 6.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최 인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39.9%라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후보가 민주통합당 당적을 보유했던 지난 1월 20일 광주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47.9%)에 비해 8% 포인트 빠지는데 그친 것이다.



이다. 그만큼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다.

배기운 민주통합당 후보의 약진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 들었음에도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에서 박선원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받는데 이어 최 인기 후보의 턱 밑까지 추격했기 때문이다. 배 후보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나주에서 최 후보가 43.9%의 지지율로 배 후보를 11%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순에서는 배 후보가 36.4%의 지지율로 최 후보에 1.8% 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도 꾸준히 바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여론조사 지지율(10.5%)에 비해 1.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종안 후보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한 자리 수 지지율에 그치면서 좀처럼 상승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화순 총선 구도는 민주통합당의 바람과 최 인기 의원의 탄탄한 지역 기반이 맞서는 형국으로 형성되면서 막판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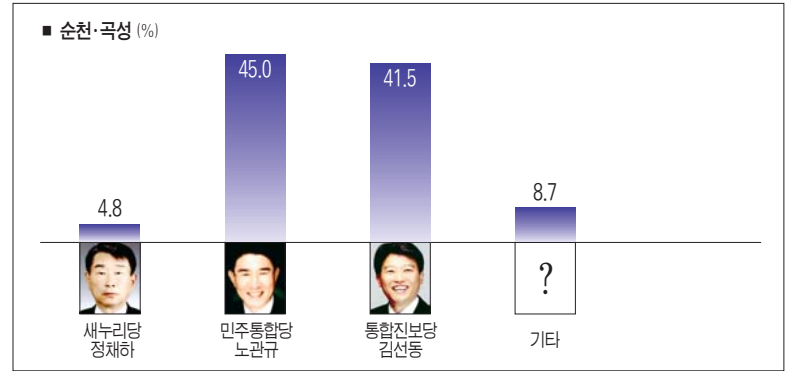
순천·곡성

선거구 조정으로 곡성군이 새로 편입된 순천·곡성 지역구는 노관규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선동 통합진보당 후보 간의 '피 말리는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출신의 노관규 후보는 45.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가 41.5%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3.1%포인트)로 따라붙은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순천에서는 노관규 후보가 44.3%, 김선동 후보가 43.4%의 지지율로 불과 0.9%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또한, 1·2·5선거구 지지율에서는 노 후보가, 3·4선거구에서는 김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선거구를 제외하고 양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2~8%포인트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유권자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 곡성에서는 노 후보가 50%의 지지율을 기록, 28.2%에 그친 김 후보를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노 후보가 53.1%의 지지율을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김 후보는 38.3%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기업을 보였다.

이는 민주통합당 지지층의 3분의 1 이상이 통합진보당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김선동 후보가 46.2%의 지지율로 노 후보를 4.7% 포인트 앞섰고 여성에서는 노 후보가 48.3%의 지지율로 김 후보를 11.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 후보와 김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순천·곡성 지역구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결 양상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전남 교두보'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동층의 표심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역 민심의 흐름 등이 막판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재하 후보는 4.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 후보는 모든 연령층과 선거구에서 한 자리수 지지율에 그쳤다. (총선특별취재단)

전남 10명 중 5명 "공천 잘됐다"

민주당 공천 평가

전남지역 유권자 절반 이상은 민주당의 제19대 총선 공천이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통합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53.5%가 '잘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매우 잘됐다'는 응답자는 14.3% 밖에 되지 않았고, 39.2%가 '대체로 잘됐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됐다'는 답변은 32.4%로, 10명 중 3명이 이번 민주당 공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 공천 전반이 '매우 잘못됐다'는 응답자는 11.0%였고, '대체로 잘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1.4%였다.

지역별로는 여수 을 선거구에서 '잘됐다'는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다. 순천·곡성과 고흥·보성에서는 긍정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긍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됐다'는 비율은 20대가 51.9%, 40대 52.4%, 50대 52.8%, 60대 이상 57.4%였다. 30대(49.1%)만이 긍정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긍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됐다'는 비율은 20대가 51.9%, 40대 52.4%, 50대 52.8%, 60대 이상 57.4%였다. 30대(49.1%)만이 긍정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여수 을 선거구에서 '잘됐다'는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다. 순천·곡성과 고흥·보성에서는 긍정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긍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됐다'는 비율은 20대가 51.9%, 40대 52.4%, 50대 52.8%, 60대 이상 57.4%였다. 30대(49.1%)만이 긍정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공천잡음' 민주 지지율 두달새 4%P 하락

정당 지지도

민주통합당이 61.4%로 다른 정당을 압도한 가운데 ▲새누리당(8.7%) ▲통합진보당(7.8%) ▲정몽민주당(2.9%) ▲자유선진당(1.9%) ▲국민생각(1.6%) ▲진보신당(0.9%)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8%였다. 전남지역의 민주통합당 지지도는 광주(54.6%)보다 9.5% 포인트 높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조사(5.7%)보다 3.0%포인트 상승했고, 통합진보당도 지난 1월 조사(3.5%)에 비해 4.3%포인트 상승했다. 통합진보당은 통합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 총선에 많은 후보를 내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1개 선거구 중 7개 지역에서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 여수시 갑(55.3%)과 순천시·곡성군(59.3%), 나주시·화순군(55.6%), 광양시·구례군(55.5%) 등에서 50%대 지지율에 그쳐 전남 동부권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ARS 회선 수는 1380채널에 달했고, 발음전환 및 수화 무려 70만4320통이었다. 전화로 받은 수신자는 23만1597명이었다. 총 통화시간은 992만8784초(약 16만5480분)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였다.

수신자 총 23만1597명 방대한 조사

조사 어떻게 했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뷰'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ARS RDD(Random Digit Dialing-임의번호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남 지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1000명(선거구당 1000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11곳과 제19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 강진, 무안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ARS 회선 수는 1380채널에 달했고, 발음전환 및 수화 무려 70만4320통이었다. 전화로 받은 수신자는 23만1597명이었다. 총 통화시간은 992만8784초(약 16만5480분)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였다.

특히 11곳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각 1000명의 정량표본(2012년 2월 말 현재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지역·유권자비례)을 얻기 위해 표집한 표본 수(결 응답자)는 1만6746명이었다. 유효표본 1만1000명 가운데 KT 등재 인원은 5154명(46.9%)이었으며, 비등재 인원은 5846명(53.1%)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전남 지역 평균 ±0.9%포인트(95% 신뢰수준), 국회의원 선거구별 조사는 ±3.1%포인트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순천은 876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 강진은 286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5.8%포인트), 무안은 608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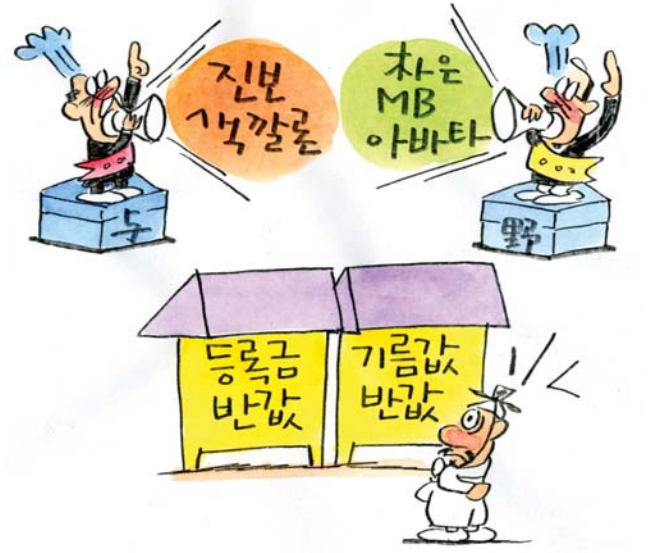
광주 온 한명숙 대표 민주 총선 승리 다짐

27일 광주를 방문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광주 서구 갑 선거구 박해자 후보 사무실에서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뒤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票 업을 소리는 많고 많은데...

www.acrc.go.kr

행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시원하게, 부패행위는 깨끗하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0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